

신발끈 고쳐맨 '수출'...3년만에 성장세 반등

상반기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자동차·석유업종 호조 전년비 수출 7.6%·수입 34.6% 증가...57억달러 흑자

올해 상반기 광주와 전남지역의 수출이 세계적인 경기 회복과 수출단가 상승 등에 힘입어 성장세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상반기 마이너스 이후 3년간 지속된 수출 감소세에 마침표를 찍고 성장세로 반등하며 수출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20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발표한 '2017년 상반기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반기별 수출 증가율은 2015년 하반기 -12.0%에서 2016년 상반기 -8.2%, 2016년 하반기 0.

7%, 올해 상반기 -0.8%를 기록해 상승세를 유지했다.

전남 역시 2015년 하반기 -22.9%였던 증가율이 2016년 상반기 -12.5%로 개선됐으며 2016년 하반기 4.5%로 플러스 전환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12.2%로 두 자릿 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수출 회복세는 광주의 경우 자동차 수출 확대가 영향을 미쳤으며 전남은 석유관련 업종이 수출단가 상승과 수요확대로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올해 상반기 광주·전남 수출입 현황을 보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6% 성장한 224억4700만달러, 수입은 34.6% 증가한 167억16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57억31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지역별로 광주 수출은 72억80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했다. 품목별로 자동차가 신형시장 수출 호조로 1.0% 증가했으며, 반도체·냉장고·타이어 수출은 각각 2.2%, 1.7%, 16.3% 감소했다.

전남 지역의 수출은 151억7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했다. 선박을 제외한 10대 주력 품목 수출이 모두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석유제품과 합성수지 수출은 수출단가 호조에 힘입어 각각 23.7%, 17.6% 증가했으며, 철강관 수출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14.5% 증가했다.

주동력 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상반기 광주·전남지역 수출이 성장세로 반등했지만 무역 흑자폭은 줄었는데 이는 수출에 필요한 원자재와 중간재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기불황에 따라 지속된 수출 감소세가 플러스로 전환되며 반등하고 있는 추세"라며 "하반기에도 수출 회복세가 지속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441.84 (+11.90)
- ↓ 금리 (국고채 3년) 1.74% (-0.01)
- ↑ 코스닥 676.51 (+4.98)
- ↑ 환율 (USD) 1125.50원 (+4.90)



주행감·편의성 강화 '더 뉴 쏘렌토'

국산 SUV 첫 8단 변속기 탑재 가속 높이고 진동 방지

기아자동차는 주행성능과 디자인을 개선한 '더 뉴 쏘렌토'를 20일 출시했다. 더 뉴 쏘렌토는 2014년 8월 출시된 '올 뉴 쏘렌토'의 부분 변경(메이스트리프 트) 모델이다.

기아차에 따르면 이 차량은 국산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는 처음으로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돼 가속 및 NVH(소음·진동 방지) 성능이 향상됐고 부드러운 주행감을 제공한다.

연비는 13.4km/ℓ (2.2 디젤 모델·18인치 타이어 기준)로 동급 최고 수준이다. 동급 최초로 6구동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휠(R-MDPS)이 모든 트림에 기본 적용됐으며, 운전자의 주행습관에 따라 자동 변경되는 '스마트 드라이브 모드' 기능이 추가돼 주행성능이 강화됐다. 디자인 면에서는 전면부에 핫스탬핑 라디에이터 그릴과 풀(LED) 헤드

램프, 후면부에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와 트윈팁 머플러 등을 적용해 세련되면서도 역동적인 이미지를 표현했다. 내장 디자인에는 브릭 브라운 컬러를 신규 적용하는 한편 다이아몬드 커팅 가죽 시트, 리얼 스티치 차명 자수 적용 시트 등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크기는 전장 4800mm, 휠베이스 2780mm, 트렁크 용량 660ℓ (5인승 기준)로 경쟁사의 대형 SUV와 비슷하다. 최고 출력 202마력, 최대토크 45.0kg·m(2.2 디젤 모델 기준)의 힘을 발휘한다.

기아차는 더 뉴 쏘렌토의 상품성을 더욱 강화하면서도 가격은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모델별 판매가격은 ▲2.0 디젤 2785만~3350만원 ▲2.2 디젤 2860만~3425만원 ▲2.0T 가솔린 2855~3090만원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삼성 에어컨·냉장고 '에너지 절감' 3관왕

'무풍에어컨' 등 삼성 전자의 가전제품들이 에너지 절감에서도 '옴'을 나타내 국무총리상 등을 수상했다.

삼성전자가 지난 1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0회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상·에너지 기술상·에너지 위너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무풍에어컨이 국무총리상을, 시스템 에어컨 '360 카세트'가 에너지 기술상, '세프클리션 패밀러리브'가 에너지 위너상을 각각 수상했다.

광주공장에서 생산하는 무풍에어컨은 세계 최초로 적용한 열교환기 기술과 초절전 인버터 기술을 적용해 사용면적 58.5㎡급에서 국내 최고의 에너지 소비 효율을 달성했다. 일반 에어컨 대비 전기요금을 80% 절감시켰다. 일반 제습 운전 대비 최대 40%까지 소비전력을 절감한 것도 특징이다.

시스템 에어컨 360 카세트는 세계 최초로 블레이드가 없는 기류 제어 기술을 적용해 기류 손실을 최소화했다는 점이 수상 요인으로 꼽혔다.

세프클리션 패밀러리브 냉장고는 듀얼 컴프레서와 트리플 롤링 사이클 기술을 적용해 냉각 효율을 크게 개선한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기준 회사 전체적으로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2008년 대비 49% 향상시켰고 한국, 미국, 유럽 등 총 11개 국가의 환경마크와 글로벌 규격 기관들의 친환경 인증을 취득하는 등 제품의 에너지 효율과 친환경성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bigkim@



지난 19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한국-카자흐스탄 에너지포럼'과 중소기업 수출촉진회를 마치고 조환익 한전 사장 등 한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전력 제공>

한전, 카자흐서 세계 첫 에너지 포럼...중앙亞 진출 기대

카자흐·우즈베크와 MOU...신재생에너지 등 공동사업 추진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카자흐스탄과 지난 19일 오후 4시(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리소스 호텔에서 '신기후체제 아래 한-카자의 미래 에너지 비전'을 주제로 양국 에너지 산업 협력을 논의하는 '한국-카자흐스탄 에너지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한-카 에너지포럼은 한전이 해외에서 주관하는 최초의 국제적 비즈니스 포럼 행사로, 아스타나 엑스포 한국 주간(7월 17일~7월 21일) 중 한국의 날인 19일에 개최됐다. 양국 정부 주요 인사와 에너지 업계·학계 전문가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한전은 이번 에너지 포럼을 계기로 양국 에너지 서밋(Energy Summit)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포스트 화석연료 시대에 잠재력을 지닌 카자흐스탄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해 본격적인 중앙아시아 전력시장 진출이 기대되고 있다.

조환익 사장은 이날 "파리기후변화 협약 이후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신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에너지생태계가 급속하게 조성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힘입어 전기와 통신, 자동차의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졌고, 패러다임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상황이다"며 "한전은 신재생에너지의 효율 극대화와 함께 친환경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모든 전력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편리하고 강력한 에너지 플랫폼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이 자리가 한국과 카자흐스탄을 이어주는 에너지 실크로드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또 KOTRA와 공동으로 아스타

나 엑스포 한국 주간에 맞춰 아스타나에서 국내 전력 분야 중소기업 18개사와 해외 수출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수출촉진회도 가졌다.

한편, 한전은 20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카자흐스탄 최대 민간전력회사 CAEPCO(사장 예르킨 아미르하노프)와 전력산업 분야 포괄적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카자흐스탄 에너지기업과 협력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사업 등 전력산업 분야 공동사업개발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후 21일에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영전력공사 Uzbekenergo(사장 무스타파예프 울르그베크)와 발전·송전·배전 전력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사업을 포함한 전력분야의 포괄적 협력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기술교류 및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재호기자 lion@

휴가철 면세범위 초과물품 집중 단속

광주세관 24~내달 4일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24일부터 8월 4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자진신고 홍보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여름휴가 해외여행객들이 증가하면서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 물품 등의 국내반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테러 및 사회안전 위협물품 단속을 통해 국경경비를 강화하고 자진신고 문화를 정착하여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광주세관은 이 기간 동안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여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한 검사비용을 평소보다 30%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면세점 고객구매자는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엄정 과세조치하고 가족 등 동행자에게 고가의 물품을 대리로 반입하게 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대리반입 시 적발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면세범위(미화600달러) 초과물품에 대한 자진신고 시 15만원의 한도 내에서 관세 30%까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에게는 가산세(납부세액의 40%, 2년 내 미신고가산세를 2회 징수한 경우 3회째부터 60%)가 부과된다. /최재호기자 lion@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